

Monthly Report 3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차

팀원 소개
3월 일정
Caritas 소개
Cambodia 소개
이웃만들기
O
기관방문
YDP
350ppm
하루를 나누는 사람들
개인есе이



팀원 소개





아기 천사



윤원섭 _ 21세

캄보디아 이름: 솝찌웃 (Sokcheat)

이어폰. 쿵쿵거림. 포토그래퍼. 콜라성애자. 식은땀. 주부습진. SNS.

3월의 한 마디: "괜찮아요 ... (식은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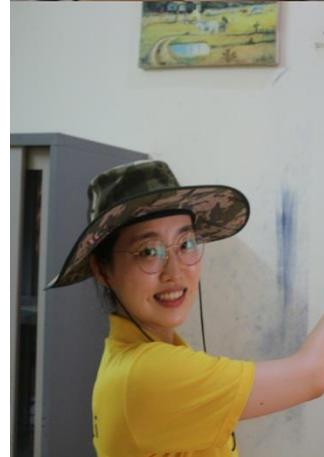


김민주_22세

캄보디아 이름: 쏘피읍 (Sopheap)

오글거림. 감수성. 글쟁이. 행복함. 변비. 눈물. 분주함. 자백. 마빡.

3월의 한마디: "예쁘든가"



극승일_23세

캄보디아 이름: 마까라 (Makara)

병맛. 말 먹음. 느림. 설4. 마름. 미식가. 어색한 웃음

3월의 한마디: "웅얼웅얼 ... (안들림)"



멋진 척



예쁜 척

차현정_24세

캄보디아 이름: 찬투 (Chanthou)

현지인. 작음. 포켓걸. 배고픔. 쾌변. 건강함. 1일 1망고. 댄싱머신

3월의 한마디: "맛은 추억이다 ..."



찬투 짱친



숨은 찬투 찾기





애니멀 러버

이지수_25세

캄보디아 이름: 티 (Thy)

총주방장. 카페인증독. 피곤함. 늙음. 알레르기. 1일 1맥주. 동물애호가
3월의 한마디: "어머 나 미쳤나봐..."



피곤함



3월 일정



MON	TUES	WED	THURS	FRI	SAT	SUN
						1
2	3	4	5 11pm. 도착	6 Caritas 인사 프싸 따끄마으 - 생필품 구매	7 프싸 따끄마으 - 지리 익히기	8 마을 지도 그리기
9 YDP OT(w 피룸) 유스들의 환영식	10 예산 관련 OT 유스와 한국 놀이 YDP class 설문지 제작	11 YDP 계획 미팅	12 유스 설문지 미팅 원섭,지수 병원	13 마을 음식 돌리기(잡채) 유스들과 저녁식사	14 봉번과 차끄다으 배우기 YDP 여행 계획	15 마을 수업 계획 프놈펜 방문 계획
16 까리파스 전 직원 미팅	17 YDP class 공고문 준비 유스들과 왓프놈 4주 Work Plan 작성	18 YDP class 공고문 제작 피룸과 리버사이드	19 프놈펜 (국민은행&대사관 방문)	20 (프싸 트마이&한인마트)	21 YDP class 준비	22 마을 수업 공고문 제작
23 YDP 영어 수업	24 35Oppm 회의 YDP 한국어 수업	25 마을 수업 홍보 YDP 영어 수업 아띠 데이 준비	26 캠 YMCA 방문 YDP 아띠 데이 (노래 나눔)	27 YDP 영어 수업 유스들과 저녁 (돼지김치볶음)	28 이여이 가족 초대 (w 탄, 어덤, 흥 가족)	29 유스들과 리버사이드
30 캠 공부 (문화, 정치) 마을 수업 홍보 YDP 영어수업	31 KCDP 미팅 캠 공부 (경제, 역사) 생활수칙 점검 YDP 한국어수업					

Caritas 소개





카리타스는 국제 옹호 활동을 하는 교황청 관할 기구이다.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계의 빈곤 문제들을 연구하며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톨릭 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곳 캄보디아 깐달 카리타스는 YDP, CDP를 운영한다. YDP(Youth Development Program)는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운 뒤 사회에 나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CDP(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농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Cambodia 소개





집 앞의 흔들의자와 평상, 집집마다 있는 해먹과 작은 불상, 너무 뜨거운 햇빛, 하늘에 구름과 별과 달, 주렁주렁 열린 스바이, 뜨거운 햇빛아래의 빨래들, 크지만 착한 강아지들, 쉽게 보이는 꽃들, 툭툭, 500리엘(125원)밖에 하지 않은 단체 툭툭, 콜라병에 파는 휘발유, 집 앞 미차·미초, 달달한 따꺼뜨꺼, 우리에게 먼저 웃으면서 손 내밀어주는 꼬마들과 유스들, 이제는 익숙해진 찡쩍, 덜 익숙해진 뚝까에, 맛있는 캄부지아비어와 앙코르비어, 거리의 쓰레기, 도로의 흙먼지, 시장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이것이 우리가 한달 동안 살면서 보고 느낀 캄보디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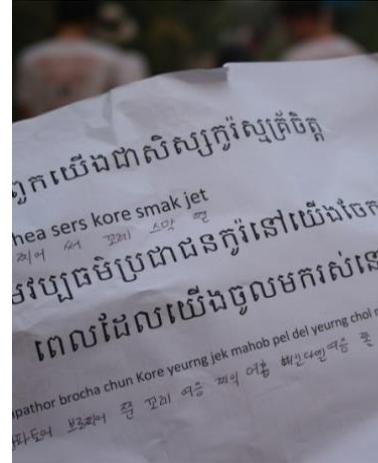
이웃 만들기



이웃 만들기

깐띠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을을 산책하곤 했다. 길 이 눈에 익을 때쯤 마을지도를 만들었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잡채를 만들어 인사를 다녔다. 하루는 함께 사는 할머니의 가족들을 초대해 즐거운 저녁식사를 가졌다.

처음에는 우리를 낯선 이방인으로 보는 눈이 많았다. 하지만 자주 산책을 다니다 보니 마을 어르신과 꼬마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곤 한다. 그들과 웃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 될 날이 기대된다.





OI

유스들의 환영식

아띠들이 도착한 후 첫 월요일.

유스들의 환영식이 있었다. 유스들이 캄보디아 전통 춤, 예절, 그리고 놀이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못해 미안했다.

캄보디아에서의 첫 시작,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진심으로 환영해준 유스들과 까리따스 직원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전체 스태프 미팅



3월의 첫 2주 동안은 전체적인 OT와 수 차례 회의를 했다. 까리따스 소개, 프로그램 소개, 우리들의 계획, 유스 대상 설문진행, 예산 관련 정보 등 ... 여유로운 호흡으로 서로 맞추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OT 기간 중 기억에 남는 한 마디를 나누고 싶다.

YDP 프로그램 매니저인 피룸씨의 한 마디이다.

“우리가 회의 중에 싸우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서로가 더 나아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뿐,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니까.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하면 좋겠어요.”

기관 방문





프놈펜 나들이

간띠들은 19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다녀왔다. 오전에는 KB국민은행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국민은행 한국 주재원님과 캄보디아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에는 왓 프놈, 센트럴 마켓, 프놈펜 왕궁과 같은 주요 관광지들을 방문했다.

캄보디아 YMCA

캄보디아 팀은 라온아띠 중 유일하게 호스트 기관이 YMCA가 아니다. 3월 26일 깐띠들은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YMCA를 방문했다.

캄보디아 YMCA는 현재 크게 4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4가지 프로그램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Street Children School),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공정여행, Youth development 이다. 사무실에서의 짧은 미팅 후 깐띠들은 캄보디아 YMCA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들을 둘러보았다.



캄보디아 Y 센터에서 '아기스포츠단'과 비슷한 형태의 유아교육이 진행된다. 이는 유료로 제공되며, 3개 반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Street Children School은 고아, 이혼가정, 편 부모가정에서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treet Children School들은 프놈펜에서도 가장 빈민촌인 기차길 옆 판자촌에 위치하고 있었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출석한다. 때로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생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기 위해 점심을 가져간다고 한다.



캄보디아 YMCA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가난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고 한다.

공정여행은 'Alternative Tourism'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정여행은 국내훈련에서 깐띠의 주제이기도 했기에 더욱 익숙하게 다가왔다. Homestay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YMCA가 여행자와 현지마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과 현지마을이 서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YMCA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깐띠 총평]

캄보디아 YMCA를 다녀와서 깐띠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캄보디아 YMCA는 까리타스보다 인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YMCA는 우리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따끄마으 마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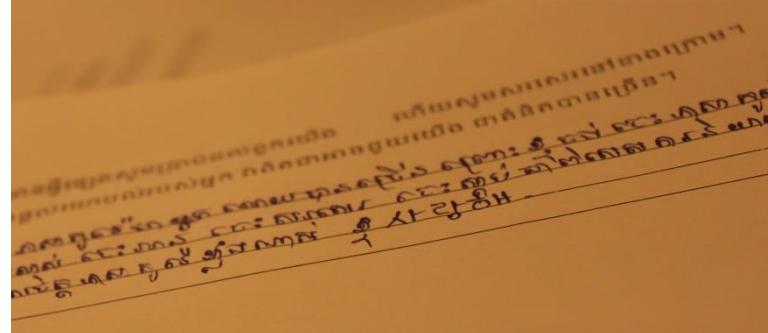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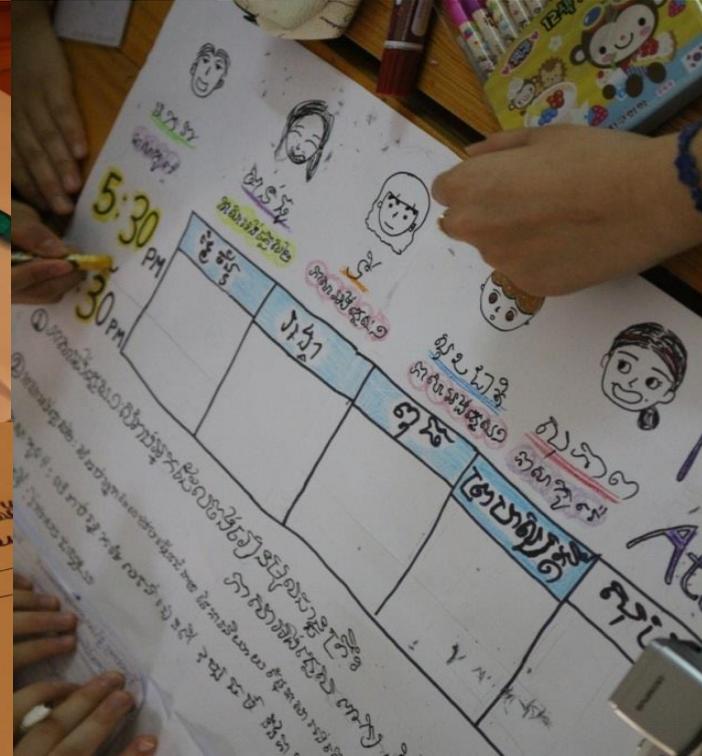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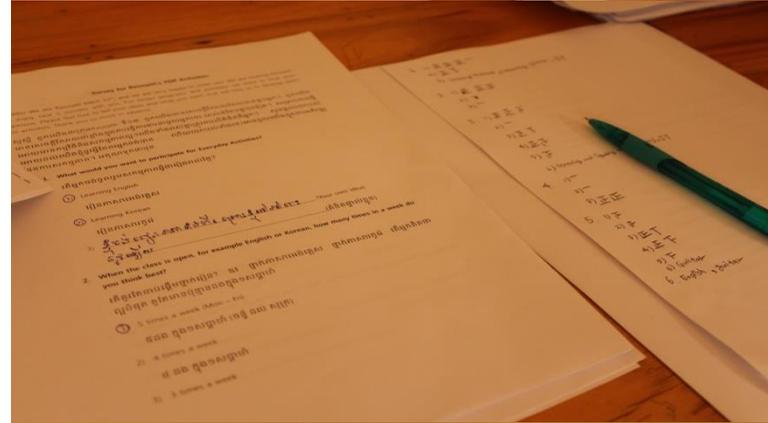


YDP



까리따스에서 깐띠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은 YDP 수업이다. 까리따스 직업학교 내 유스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피룸씨와 탄씨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유스들은 영어수업을 원했다. 한국어 수업의 수요는 생각보다 적었으며, 그 외에도 문화 교류를 원했다. 유스들의 요구에 따라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세 번, 한국어 수업을 한 번, 문화 교류를 하는 아띠 데이를 한 번으로 정했다.



English 1 Class

영어 1은 원섭 아띠와 지수 아띠가 맡았다. 기본부터 시작하는 영어 수업이지만 개인별로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하지만 다수의 요구에 따라 알파벳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했다. 현재 A부터 Z까지 알파벳과 단어 수업을 마친 상태이다. 4월에는 어려운 발음들과 기초 회화를 중심으로 수업할 계획이다.



English 2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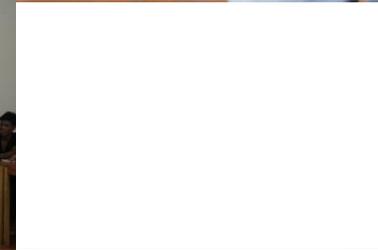
영어 2는 현정 아씨가 맡았다.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유스들과 함께 문법과 표현 중심으로 진행한다. 유스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제를 짚으면서 다양한 주제로 회화 수업을 진행했다.

4월에는 더 심화된 문법과 상황 별 회화연습을 할 예정이다.



Korean Class

한국어는 승일 아띠와 민주 아띠가 맡았다.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어를 어렵게 느끼는 유스들이 가고, 한글의 자음, 모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유스들만 남은 관계로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tti Day

아띠 데이는 모든 아띠가 참여하지만 승일 아띠와 민주 아띠가 주로 계획한다.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으로써 노래, 스포츠, 쿠킹 클래스 등으로 구성했다. 첫 아띠 데이에는 한국 노래를 알려주었다. 깐띠들은 빅뱅의 '붉은 노을'을 준비했고, 유스들에게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엔 너 뿐이야' 두 문장을 알려주었다. 유스들도 우리에게 'Holiday'라는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첫 아띠 데이를 마무리했다.





350ppm

350ppm

깡띠들은 한 달간 캄보디아에 적응한 뒤에 350ppm 수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은 남기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수정하였다. 분리수거 등 규칙으로 정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고민되는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기존 '깡띠 350ppm'

1. 텀블러 사용
2. 3층 이후는 계단
3. 음식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4. 안 쓰는 플러그 뽑기
5. 이면지 사용하기
6. 일주일 1회 Meatless Saturday
7. 분리수거
8. 장바구니 사용



새로운 '깡띠 350ppm'

1. Meatless Day 늘리기
2. 이면지 활용
3. 재활용하기
4. 에프킬라 사용 줄이기
5. 지난달보다 공장과자 덜 먹기
6. 점심 때 불 끄기
7. 휴지대신 걸레 · 행주 · 손수건 이용하기
8. 마트보다 시장이용하기
(비닐봉지 사용 줄이고 에코백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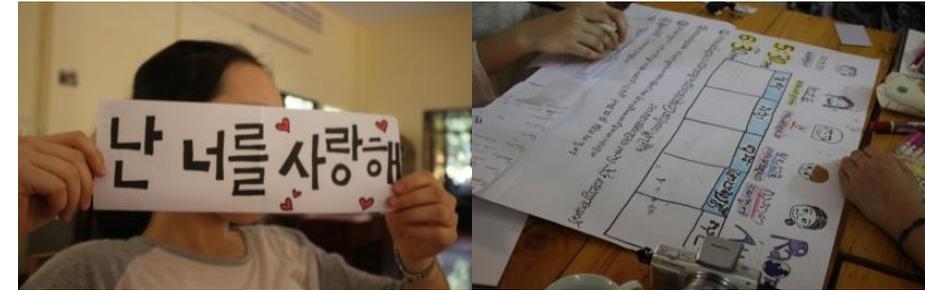
1. MEATLESS SATURDAY

3월 7/14/21/28일 하루에 한끼씩 Meatless를 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Meatless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토요일이 되면 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2. 이면지 활용

깐띠들이 가장 쉽게 실천한 수칙이다. 이면지를 사용해 Caritas내에 붙일 공고문과 Village Children 공고문을 제작했다. 또 민주·승일 아띠는 이면지 노트를 만들었고, 현정·지수·원섭 아띠는 영어수업의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했다.



3. 재활용하기

마실 물을 사먹어야 하는 이 곳에서는 며칠이 지나면 수많은 페트병이 쌓인다. 나름대로 재활용 방안을 생각하여 실천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진 관계로 쌓아두고만 있다. 생활에서 나오는 일회용품들을 마을아이들 수업, CDP활동의 수경재배설치 등으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4. 에프킬라 사용 줄이기

프레온가스배출과 폐기할 때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프킬라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다. 전기 모기약, 피우는 모기향으로 대체할 생각이다.

5. 지난달보다 공장과자 덜먹기

공장과자는 몸에 안 좋다는 아기스포츠단 아이들의 말을 금새 잊었는지 우리는 ...

힘들다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과자를 먹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스와이(망고)가 주렁주렁 매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사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했다. 아예 먹지 않는 것은 힘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6. 점심 때 불 끄기

낮 시간에는 전등을 켜지 않아도 충분히 햇빛이 밝아서 괜찮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형광등을 켜곤 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전기 사용을 줄여보기로 했다.



7. 휴지대신 걸레 · 행주 · 손수건 이용하기

Caritas에서 스텝 쌤님이 커피를 쏟았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휴지를 뽑아 드렸다. 그런데 괜찮다며 걸레를 가져와 닦으셨다. 그때서야 우리들의 휴지사용에 대한 측면을 인식했다. 그 뒤로 걸레, 행주, 손수건을 잘 이용해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아직은 모두들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8. 마트보다 시장이용하기

(비닐봉지 사용 줄이고 에코백 이용하기)

따프마의 시장과 트마이시장 가는 길에는 럭키마트가 있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럭키마트를 더 많이 이용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캄보디아와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루를 나누는 사람들



Ep 01. Dancing & Exercise Time

깐띠들은 매일 밤 함께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음악에 맞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다같이 춤을 추게 된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 놓고 지칠 때까지 춤을 춘다.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Ep 02. 5달러 시계 사건

처음 프놈펜에 갔던 날 민주 아씨는 5달러짜리 시계를 힘든 흥정 끝에 구매했다. 5달러 시계의 수명은 5일이었고, 5일 뒤 원섭 아씨의 시계도 운명을 다했다고 한다...

Ep 03. Different Time

깐띠들은 매일 밤 하루 나눔 시간을 가진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서로에게 느끼는 불편함(다름)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비슷한 듯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Ep 04. 이여이 가족과의 식사, 처음 맞는 정전과 비

주인집 할머니의 대가족을 집에 초대할 날. 즐겁게 먹고 마시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고 불이 꺼졌다. 촛불을 켜고 밥을 먹은 것도, 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것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것도 모두 처음인 하루였다.

개인 에세이





"나와 잘 맞는다는 것은 나와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하기 보다는 나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집 앞에 있는 망고나무와 야자수, 언제나 푸른 하늘, 달달한 연유커피는 내가 한국이 아닌 캄보디아에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준다. 처음 몇 주 동안 내 머리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 학업, 진로, 인간관계 등 한국에서의 고민들이 머나먼 캄보디아에서도 이어졌다. "나는 캄보디아에 와서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한국을 떠나서 행복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위에 의문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나는 지난 3월이 매우 행복했다. 내가 좋아하는 바게트 빵의 가격이 채 5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다.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국제개발협력 현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매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지만 홀로 이곳에 왔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나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팀원들이 함께 했기에 나의 행복은 배로 늘어났다.

그렇기에 나는 앞으로의 4개월이 더욱 기대된다.

[3월의 여름]

스물 둘, 처음으로 3월에 여름을 만났다.
그런데 이 더위가 낯설지가 않다.

어디를 가도 하얀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 이름은 원래 소피움이었던 것처럼,
3월이 원래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처럼.

3월의 여름은 시간을 느리게 만들었다.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매 순간을 마음에 꼭꼭 눌러 담고 싶어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에서 더 느리게 걷고 싶어진다.

그렇게 나는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순간 속에는
눈부시게 새하얀 구름, 아침마다 나의 행복을 묻는 이웃,
길에서 마주치는 꼬마들의 해맑은 웃음,
매일 하루를 나누는 지금 내 옆의 사람들이 있다.





[도움에 관한 생각]

첫 째,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일상에도 충분히 행복할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 째,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누구 하나, 도움 받지 않고 살아갈 순 없다.
나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위로 받고 싶다.

셋 째, 나는 도움을 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저 나로 인해 내 곁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그림 찾기]

너와 나는 참 다르다.
식성, 청소하는 것, 체력, 웃는 모습, 표현하는 방식까지 ...

다르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한 번 더 이해하고, 너로부터 배운다.

이토록 다른 그대들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노을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열심히 뭔가를 한 기억이 없는 3월이었다. 할 일없이 빈둥빈둥 해먹 위에 누워 음악을 듣고 해질녘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보고 잠자기 전 맥주를 먹었다. 덥고 또 더운 일상 속에서 나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할 일없이 최선을 다해서 쉬었다.

쉬면서 많은 반성과 고민을 했다. 내가 한 반성과 고민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옳은 선택과 옳은 행동을 하도록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 마당에는 망고나무가 4그루나 있다. 바나나나무도 있고, 잭프룻나무도 있다. 우리 집 할머니는 그날 가장 맛있게 익은 과일을 골라 우리에게 주시곤 하신다. 나는 우리 집 망고가 맛있는 것 같다.

행복했던 한 달이었다. 사랑 받았고, 좋았다. 캄보디아 사람들로부터 '캄보디아 사람 처럼 생겼어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도 마냥 좋았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다. 새로운 모든 것들에 설레었고, 재미있었다. 어느 날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게 될 순간이 두려웠다. 어차피 떠날 것을 안다는 것이 슬펐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고 있다. 생각만 앞섰던 내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느낀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은 캄보디아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일에 내 역량을 발휘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가장 많이 깨지며 배우고 있는 것은, 팀워크다. 팀원들과의 24시간 덕분에 느끼는 것이 많다. 때론 자만하고 때론 절망하고. 때론 좋아하고, 때론 싫어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하루를 느끼고 있다.

1/5이 끝났다. 남은 4/5가 더욱 기대된다. 더욱 맛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나날들 되길.



#햇빛

따스하다 못해 뜨거운 햇빛. 뜨겁다 못해 아픈 햇빛. 유독 기나긴 여름을, 햇빛을 느낄 거 같다.

#교통체증 #혼잡 #운전

프놈펜의 어느 골목길에서 도로가 툭툭, 오토바이, 트럭 그리고 차로 막혀버렸다. 한동안 아니 끝내 아무도 클랙션을 울리지 않고 손짓으로 고갯짓으로 웃으면서 결국에 도로가 뚫렸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한마디 불평도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툭툭아저씨가 툭툭을 길가로 옮긴 뒤 뒤돌아보며 웃으시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유스 #웃음 #캄보디아어

유스들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어를 많이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계속 있지만 막상 입으로 잘 안 떨어진 한 달이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하는 나한테 유스들도 스텝분들도 계속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주었다. 처음에는 그런 그들을 잘 믿지 못한 거 같았다. 지극히 내 입장에서 바라봐서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나 보다. 근데 내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사는 #사람들

친구같은. 가족같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있는 사이. 뭐라고 딱 단정지어버리면 그 단어에 관계가 얽매일 것 같아서.. 하지만 같은 듯 다른 듯 소란스럽게 함께 지내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좋은 느낌의 신경이 쓰인다.

4월에 만나요